

인기 캐릭터 삼총사 곡성서 공연 펼친다

뽀로로·캐리·슈퍼윙스
29~31일 섬진강기차마을
심청어린이대축제에 등장
울동 따라하며 환상의 세계 '흠뻑'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캐릭터 삼총사가 곡성에서 신나는 공연을 펼친다. 곡성군에 따르면 29일부터 31일까지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에서 제21회 곡성심청어린이대축제가 열린다. 전국 최초로 10월에 열리는 어린이대축제로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TV나 영상으로만 보았던 인기 캐릭터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공연이 마련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축제 개막 공연으로 '캐리와 친구들'의 무대가 펼쳐진다. 공연은 음악, 노래, 율동 등을 결합한 뮤지컬 형식으로 진행된다. 어린이들은 노래와 율동을 따라하며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캐리와 친구들의 공연은 출연진들이 수시로 객석에 내려와 어린이들 한 명 한 명과 교감을 나누는 것으로 유명하다. 30일에는 '뽀로로 싱어쇼'를 만나볼 수 있다. 뽀로로 캐릭터는 '초통령'의 원조격인 만큼 여

전히 어린이들에게 압도적인 인기를 받고 있다. 뽀로로 공연 역시 싱어쇼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연에 흠뻑 빠져들기에 좋다. 축제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슈퍼윙스 싱어쇼'가 공연된다. 슈퍼윙스는 비행기 캐릭터들의 문화탐험 어드벤처를 다룬 아동용 애니메이션이다. 2014년부터 방영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요즘 아이들 둔 가정에는 슈퍼윙스 장난감 이 없는 집이 없을 정도다. 공연에서는 중독성 있는 노래와 율동으로 어린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곡성심청어린이대축제에는 전국 스트리트댄스 배틀,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대회, 매직 버블쇼, 어린이 뮤지컬 '누가 내 머리에 똥 썼어' 등 풍성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축제 기간 중 헬로윈 테마공원, 과학 탐험과 우주 캠프, 장난감 낚시 등 어린이들을 상상의 세계로 빠져들게 할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들이 가득하다. 모든 공연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해야 하며, 공연을 제외한 체험 프로그램이나 관람형 시설들은 방역 수칙 준수 하에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곡성군 관계자는 "전국 최초 10월의 어린이대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현장을 찾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모든 공연을 유튜브 채널 '곡성어린이대축제'를 통해 생중계한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뽀로로, 캐리와 친구들, 슈퍼윙스(위에서부터)

광양시, 연말까지 '드론 온택트 페스티벌'

드론 영상·사진공모전 등 다채

광양시가 오는 12월 31일까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행사로 '2021 광양 드론 온택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페스티벌은 VR·AR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드론 전시장과 광양시를 대표하는 관광지 사이버 투어, 드론 영상전, 드론 사진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50대 드론의 군집 아트쇼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VR·AR 기술을 활용해 비대면 행사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코로나 블루 완화와 공모전을 통한 드론 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12월10일까지 영상·사진 작품을 접수하며, 향후 온라인 플랫폼 게재와 시민 투표를 통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시상할 계획이다. 또 플랫폼 접속 인증사건 게시자와 영상·사진 공모전 시민 투표자 중 무작위로 400명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관광지 사이버 투어와 드론 전시장은 11월 중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오픈할 계획이며 드론 군집 아트쇼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 후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할 예정이다. 조선미 광양시 전략정책실장은 "시는 드론 온택트 페스티벌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반영해 추진하는 최초의 사례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삼동지구 소재부품 공정혁신 시물레이션 센터

여수시 259억 들여

여수시가 노후 석유화학 장치산업을 디지털 혁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삼동지구 소재부품 공정혁신 시물레이션 센터 구축에 나선다. 2023년까지 총 사업비 259억원(국비 178억원, 도비 15억3천만원, 시비 35억7000만원, 민자 30억원)을 투입해 여수 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 및 플랜트 산업 제조 공정-프로세스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고생산성, 에너지 효율, 저오염 등 친환경 제조 산단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여수국가산단은 화학소재-부품산업, 석유화학산업 핵심 생산기지다. 단일 규모 국내 최대 종합 석유화학 집적단지이자 화학소재의 중추적 생산기지

로 국가 기간산업 핵심 요소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5년 간 연평균 생산은 -2.4%, 수출은 6%로 생산성이 둔화되고 석유화학 공급 과잉과 중국의 설비투자 확대로 경쟁력이 약화돼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시물레이션 센터가 건립되면 소재·부품 시물레이션·실증테스트 기반 구축으로 석유화학 플랜트 산업의 제조공정 혁신 기술개발이 가능하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물레이션 센터 구축은 가상 공간의 활용을 최적화하여 공정기간 단축, 에너지 절약,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등 시행착오 최소화 등을 통해 여수국가산업단지의 혁신과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사람이 돌아오는 행복고흥 만들기' 총력

귀농귀촌 행복학교 개강
민선 7기 들어 4804명 전입
이론·실습 겸비 맞춤형 교육



제9기 고흥 귀농귀촌 행복학교 개강 모습.

<고흥군 제공>

고흥군이 귀농귀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조기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제9기 고흥 귀농귀촌 행복학교'를 개강했다. 이번 9기 교육은 3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29일까지 진행되며, 전문강사 및 선도농가를 초빙해 귀농귀촌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론 및 실습)을 실시한다. 귀농귀촌 행복학교는 2019년 개소 이후 현재까지 8기에 걸쳐 268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군은 2018년 인구정책과를 신설했고, 2019년 9월에는 군이 직영하는 고흥 귀농귀촌 행복학교를 개소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교육과 농촌체험 기회 부여 및 임시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내사랑 고흥기금'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이미 90억원을 확보해 귀향 청년 정착장려

금과 주택수리비, 가업승계 자금, 청년창업가 발굴 프로젝트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으로 민선 7기인 2018년 7월부터 귀농·귀촌·귀향인구가 1개 면에 해당하는 4804명이 전입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 해양수산부가 공동 발표한 '도시민 귀농인 통계'에서 2019

년 전국 1위, 2020년에는 3위를 차지했다. 송기근 고흥군수는 "앞으로도 '귀농귀촌 1번지! 사람이 돌아오는 행복고흥!'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귀농·귀촌 시책들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구례5일시장서 '구례 감 특별 직거래 장터'

구례군이 맛과 품질이 뛰어난 구례 감의 집중 출시기에 맞춰 오는 11월 14일까지 구례5일시장에서 '구례 감 특별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 직거래 장터는 기간 중 장날인 28일과, 11월 3·8·13일과 주말에 열린다. 구례 감은 지리산과 섬진강 전체의 자연환경 속에서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환경에서 자라 착색이 좋고 당도가 매우 높으며, 과육이 단단하고 저장성이 뛰어나 시중의 일반 감보다 우수한 품질을 자랑한다. 구례의 단감은 600여 농가가 198ha의 면적에서 530여 톤을 생산한다. 작년 직거래장터에서는 90

여 농가가 참여해 2억1000만원 가량의 소득을 올려 농가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올해로 일곱 번째로 열리는 구례 감 특별 직거래 장터는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기 위해 5일시장 신규조성 주차장에서 운영하며, 올해부터는 장날과 함께 주말에도 열린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직거래 장터 운영으로 생산 농가의 소득 창출은 물론 소비자에게는 맛 좋은 구례 감을 직접 맛보고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순천시, 통신취약 20개 마을 초고속인터넷 개통

통신이 취약한 외서·낙안·별량·주암면 등 농촌 지역 20개 마을에 초고속인터넷이 개통됐다. 순천시는 올해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통신사업자 KT와 함께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 협약을 체결해 인터넷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농어촌지역의 마을 거점에 기가급 초고속인터넷 접속

시설을 구축했다. 이번 초고속인터넷 개통지역은 승주읍 석동·봉곡, 주암면 비룡, 외서면 덕치·농소·송곡, 낙안면 교촌·성북·덕천·심내·운동, 별량면 대려·장산, 서면 지분·개은·건천·학동, 향천면 용림2·건천·덕림 등 총 20개 마을이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8평)
DAP-0420AWJG

6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